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3년 연속 제로화 도전

광주시,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 157곳으로 확대 등하교길 교통안전지킴이·교통안전 체험교육 활성화

광주시가 3년 연속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에 도전한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7년 6명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스쿨존 주변 신호등주(기둥)를 노란색으로 칠해 운전자의 주의운전을 유도하는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고, 차량 감속 유도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야간에 눈에 잘 띄도록 발광형 표지판과 보행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도 사업 내용이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87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 표준모델을 설치했으며, 올해 70개 학교 인근에 추가 설치해 총 157개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유발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추진해온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157대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데 이어 2022년까지 157개 초등학교에 96대를 추가 설치해 총 253대를 운영한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관할 자치구와 함께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한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통학로가 유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30여 개 초등학교에서 100여 명의 지킴이가 활동한다.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 체험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교통안전체험 공간으로 연간 1만 8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지난해 미니열차를 교체했으며, 올해는 역사를 리모델링해 어린이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인 만큼 어린이의 실제 이동 동선을 고려한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추진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겨울방학기간 운영하는 지질체험 프로그램 '지오스쿨'에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암석 표본을 들여다보고 있다.

손에 잡히는 지질학! 지오스쿨에서 만나요

광주시 지질 체험 프로그램 초등 4~6학년 13일부터 접수

광주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질 체험 프로그램 '지오스쿨' (Geo-School)을 새 단장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로 5년째를 맞는다.

지오스쿨은 우리 지역의 지질 유산을 통해 지질학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심사지구에 있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학습효과를 고려해 교육대상을 초등학교 3~6학년생에서 4~6학년생으로 조정했다.

또 접수 방식도 전화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됐다. 광주시는 특정시간에 신청자가 몰려 13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무등산권 지질공원 누리집 (geopark.gwangju.go.kr) '지오프로

그램'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는 17기와 18기 과정이 개설된다. 17기는 2월10일부터 14일까지, 18기는 2월17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된다. 각 기수별 참가인원은 24명으로 선착순 선발된다.

프로그램 주제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서 놀자! 배우자!'로 지구의 탄생부터 지진과 화산활동, 공룡들의 생활상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 직접 석고 모형으로 화석을 만들어보는 체험활동과 지역 지질 유산을 탐방하며 관찰한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무등산 정상 주상절리대를 비롯해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등 다양한 지질유산이 갖고 있는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전 세계에서 137번째,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청송에 이어 세 번째 세계지질공원 인증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7~11일 광주공연마루서 신년 국악 상설공연 둘째마당

광주국악상설공연이 올해도 이어진다. 5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연말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회 열리는 국악상설공연을 준비한다. 국악상설공연이 광주에 오면 꼭 봐야 할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1일부터 4일까지 신년 첫째마당을 운영한데 이어 7일부터 11일까지는 둘째마당을 무대에 올린다.

첫 무대는 7일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가 '세한송백(歲寒松柏)'을 주제로 꾸민다. 이 자리에서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는 가야금 병창 '단가 호남가',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국악가요 '상사화', 남도민요 '동백대령', '진도아리랑' 등을 들려준다.

8일에는 풍물세상 굿패마루가 흥겨운 풍물 퍼포먼스를 공연한다. 심봉사 팔도 유랑기를 마당극으로 풀어내는 '팔도시장 유랑가', '팽과리, 장구, 북, 징이 어우러지는 '사물시장' 등을 준비했다.

9일에는 창작국악단 도드리가 다양한 국악관현악곡들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조성희의 노래로 '연안송', '허수아비'가, 이어 국악관현악 '도드리 아리랑', 광주의 역사와 현재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국악가요 '꽃상여와 아리랑' 등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gjart.gwangju.go.kr) 또는 전화 (062-613-8379)로 하면 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2020년 광주국악상설공연 무대를 빛낼 공연예술단체를 선발한다.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및 질의응답, 3차 공연 시연 등을 거쳐 3월에는 최종 선정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아프리카 신생아에 보낼 사랑의 모자뜨기 광주시 서구가 운영하는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는 최근 아프리카 지역 신생아를 위한 '사랑의 모자뜨기 캠페인'을 펼쳤다. 서구는 만들어진 모자가 인큐베이터 등 의료장비를 이용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에서 신생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자는 이날 중순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 전달될 예정이다.

북구, 행안부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 광주 유일 선정

주민 불편 2만여건 발굴 정비

광주시 북구가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한 노력을 인정받아 광주시 자치구중 유일하게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북구는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 선정'은 소속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장려하고자 실시됐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는 적극행정 추진 경험과 성과를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분야별(적극행정일반·법제개선·면책 등) 전문가 컨설팅과 적극행정 관련 공모사업 우선 고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북구는 민선 7기 들어 27개 전 도에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주민 불편 사항 2만 3295건을 발굴해 2만 2879건을 정비(98.2%)했다.

이와함께 총 52회의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해 주민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정에 반영했으며 공공·민간시설의 주차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등 적극행정을 추진했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북구는 민선 7기 들어 27개 전 도에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주민 불편 사항 2만 3295건을 발굴해 2만 2879건을 정비(98.2%)했다.

이와함께 총 52회의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해 주민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정에 반영했으며 공공·민간시설의 주차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등 적극행정을 추진했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송정리 공군 제1전투비행단 8~9일 야간 비행 훈련

송정리 공군 군공항에 주둔 중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8~9일 야간 비행 훈련을 실시한다.

5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공군 제 1전비는 8~9일 이틀간 오후 3시20분부터 7시50분 까지 야간 비행 훈련을 진행한다.

공군 제 1전비는 긴급출동, 기상급변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예고한 야간 비행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훈련은 조정사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평시훈련이며, 야간시간 동안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공군 1전비 측은 밝혔다. 항공기소음관련 문의 전화는 제1전투비행단(942-1030)으로 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소방본부 전국 42개 업체 참여 구조장비 시연회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3일 빙고을체육관에서 구조장비 투명성과 우수장비 구매를 위한 '119구조장비 시연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119구조장비 확충 구매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날 시연회에는 전국 42개 업체가 참여해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비 화학보호복과 구조사다리 등 재난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구조장비를 선보였다. 특히 구조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심의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직접 시연하며 참가업체와 구조현장에서의 활용 의견을 공유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구조대원 의견 검토를 거쳐 올해 29억원을 투입, 장비를 교체하고 보강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사회복지학과(D.S.W.)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코칭심리학과(M.Psy.)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
· 전형일: 2020. 2. 3(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로 36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원외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취득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순수외국인은 본교에서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2,3,4학년 모집학과별 약간명씩 모집한다. 유아교육과 제외
* 한국어교육학과는 2학년 편입생은 순수외국인에 한해 모집함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6(월) ~ 17(금)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